

코인 거래 2000조 시대...주요 투자자는 '2030'

■ 금융위,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실태조사 실시

지난해 연말 기준 합계 시가총액 55조2000억
일평균 거래규모 11조3000억...젊은층 이용 ↑

지난해 하반기 암호화폐 거래 금액이 총 2073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 평균 거래 체결 금액도 1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대폭 커진 가운데 주요 투자자 연령층은 2030세대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가 시행한 '2021년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정식 신고를 마친 24개 거래소 사업자들의 지난해 연말 기준 합계 시가총액은 55조2000억원, 일평균 거래규모 11조3000억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MZ세대로 대변되는 2030세대들이 이용자 가운데 5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고 운영제 도입 후에도 젊은 층들의 이용률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는 지난해 9월24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위 FIU에 신고를 마치고 수리된 사업자만 정상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원화마켓 운영이 가능한 4개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와 코인 간 거래가 가능한 코인마켓 사업자 20개로 재편됐다. 원화마켓 일거래금액은 10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했으며 코인마켓 일거래금액은 거래규모의 5%인 6000억원에 그쳤다. 전체 거래 중 원화마켓 거래 비중이 대다수로 나타나 가상자산 거래는 원화마켓 중심으로 시장이 구성됐음을 알 수 있다.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총 1257개, 623종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단독상장 가상자산이 403종으로 매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확인할 수 있었

가상자산 사업자를 이용하는 국내 총이용자수는 1525만명이며 실제 거래에 참여하는 이용자 수는 558만명으로 나타났다. 원화마켓 이용자수 1340만명, 코인마켓 이용자수 186만명으로 집계됐다. 개인 이용자수 1525만명, 법인 이용자수 4426명으로 파악됐다. 다만, 고객확인 의무(KYC)를 통해 실제 거래 참여자 수를 파악한 결과 KYC 이행 완료해 실제 거래가능 이용자수는 558만명으로 나타나 등록 이용자수 대비 36.6%가 실질적 이용자로 확인됐다. 특히 연령대로는 2030세대가 전체의 55%로 여전히 주요 이용자 층인 것을

다. 주요 연령층은 30대였으며 그 뒤로는 40대(27%), 20대(23%), 50대(14%), 60대(4%)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40대 연령층도 초기 코인 열풍 때보다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용자 중 대다수(56%)는 100만원 이하 규모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1000만원 이상 가상자산을 보유한 이용자는 82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1일 평균 4회 거래(매도 및 매수)에 참여했으며 1회 거래금액은 약 75만원 수준에 머물렀다.

뉴스

국내 코인러들,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 선호

□ 글로벌 상위 10개 ↔ 국내 상위 10개

(단위 : 조원)

구분	글로벌 상위 10개 종목*			국내 상위 10개 종목**		
	종목명	시가총액	비중	종목명	시가총액	비중
1	BTC	1,042.7	39.2%	BTC	7.5	13.6%
2	ETH	521.5	19.6%	ETH	6.8	12.4%
3	BNB	101.6	3.8%	XRP	5.6	10.2%
4	USDT	93.3	3.5%	E**	1.5	2.7%
5	SOL	62.7	2.4%	W**	1.5	2.7%
6	ADA	52.2	2.0%	ADA	1.3	2.4%
7	USDC	50.2	1.9%	N**	1.2	2.2%
8	XRP	47	1.8%	H**	1.0	1.9%
9	LUNA	36.8	1.4%	SOL	1.0	1.8%
10	DOT	31.4	1.2%	B**	0.9	1.6%

* '21.12.31 코인마켓캡 기준 (글로벌 시가총액 2,660조원 추정)
** '21.12.31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기준 (시가총액 55.2조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가 시행한 '2021년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중 국내외 가상자산 상위 10개 종목 비교표.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글로벌 대비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 투자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트코인이란 얼터너티브 코인(Alternative coin)의 줄임말로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대체 가상자산을 가리킨다. 비트코인은 전체 가상자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커 비교적 가격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적은 편이다.

1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가 시행한 '2021년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정식 신고를 마친 24개 거래소 사업자(원화마켓 4곳·코인마켓 20곳)들의 지난해 연말 기준 비트코인 시가총액 비중은 13.6%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비중 39.2%와 비교할 때 확연히 낮은 수준이다. 국내 투자자들이 글로벌 투자자 대비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적음을 알 수 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도 글로벌 비중은 19.6%이었으나 국내에서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비중은 12.4%에 그쳤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변동성이 심한 가상자산 시장에서 그나마 가격 등락 폭이 적은 코인들이다. 특히 비트코인은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특정 투자자들에 의해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우려가 적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제외하고는 전체 비중 내 차지하는 시총 규모가 작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오거나 빠질 경우 시세가 급변할 수 있다.

국내 시장은 글로벌 시장 대비, 주요 가상자산 비중이 낮고 비주류·단독상장 가상자산 투자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총 1257개, 623종으로 이중 단독상장한 가상자산은 403종에 달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트코인·이더리움 비중(시가총액)은 글로벌 기준으로는 59%로 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에서는 27%에 달했다. 코인마켓 기준으로는 9%로 나타나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특히 국내 유통 가상자산 623종 중 65%가 단독상장한 가상자산으로 이들의 국내 시장가치는 6조9000억원에 달했다.

FIU 관계자는 "단독 상장한 가상자산의 절반은 지난해 하반기 동안 최고점 대비 가격하락률이 70%를 넘어가 이용자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뉴스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 운천로 213스카이랜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효호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형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